지독한 이해타산(利害打算)쟁이

(빌1:12~30)

12.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3.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15.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6.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 그러면 무엇이냐 겉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지독한 이해타산(利害打算)쟁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이해타산(利害打算)쟁이' 라는 말은, 요즘 말로 바꾸면 예를 들어 공부를 아주 잘하면 우리가 '공부의 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니면, 애들은 '공부의 대마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해타산의 신' 요즘 아이들의 말로 쓰면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 바울이라는 거예요.
지독하게 따져요,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바울이 어떻게 이해타산을 해 나가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그런 이해타산쟁이가 되자, 하는 뜻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이해타산이라는 말은 그렇게 긍정적인 뉘앙스를 품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타산적인 사람이 우리들 주변에 있을 거예요, 누군가.

친척 중에든 가족 중에든 있을 겁니다.
아내가 매사에, 어디 가서 뭘 좀 먹자 그러면, 그러면 특별히 맛있고 싼 음식이 한 가지 있을 거예요.
비싼 음식 좀 먹자 그러면, 다 싼 음식에 갖다가 대버립니다.
'아~ 그 돈이면 이걸 뭐 몇 번 사먹을 수 있는데…'
저희 집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조금 비싼 거, 만 원이 넘어가는 걸 한 번 점심으로 사 먹자 그러면 저희 집사람 꼭 6000원 짜리 국밥 맛있는 데가 있거든요? 국밥이 몇 그릇인데 그걸 먹느냐고…
아! 피곤해요.
이렇게 자꾸 따지는 사람, 뭐 이런 정도는 그저 애교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정말 친척 중에 타산적인 사람이 하나 끼면 대화가 안 됩니다, 피곤하고.
근데 말입니다, 타산적으로 보이는 사람을 피곤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그 깊이 속을 따지고 보면 타산적이라서 그렇습니다.
한 마디로 이해타산이 본성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이해타산이 없는 인간은 없어요, 살아 있는 한 모든 인간은 타산적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가 특별히 더 이해타산이 심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주로 돈 때문에 그렇지요, 돈.
근데 이해타산이라는 것은 꼭 돈 때문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해타산이 과연 정답이냐 이거에요.
300만원 사기를 당했다고 해봅니다.
여러분, 사기 당한 적이 있지요? 사기 당하고 나면 다 손해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손해 본 액수만큼을 내가 쓸 수 없었던 것이 이익일까요? 해가 됐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300만 원 사기를 당했는데, 그래서 300만 원 못쓰게 됐잖아요.
300만원 사기 당해서 300만 원 내 뜻대로 못쓰게 된 것이 손해냐? 이익이냐?
그걸 여러분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이 손해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300만 원 쓰지 않음으로써 엄청난 재난이 닥칠 것을 피할 수 있었는데, 300만 원 못쓰게 된 거를 무조건 손해라고 생각하고 살면서 엄청난 이익인데도 불행으로 알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또 거꾸로, 성공했다고 좋아합니다.

근데 그 성공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큰 재난이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진짜 큰 불행인데, 그 성공 때문에 슬퍼해야 될 상황에 기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해타산이 뭐에요? 이익이 되는 것과 해로운 것을 가려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해타산을 제대로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타산의 결과가 틀림이 없고, 정답일 경우에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성공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살아갈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타산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성공을 집을 수가 있고 정확한 성공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자연인들은 예외 없이 타산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본성이에요 본성.
진짜 유익이 되고 진짜 해가 되는 것을 가려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산적으로 살고는 있지만, 이거는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소망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일 뿐, 진짜 유익이 되는 걸 잡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연인의 상태로는 결코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의 참된 기준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해타산의 기준이 중요한 문제인데, 어느 것이 이해타산의 기준이 됩니까?
내가 마음으로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사랑하는 것이 이해타산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에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게 정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숭고한 희생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희생이 아니에요.
나라를 제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투자해서라도 나라에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오케이라고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한 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서, 유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목숨까지 투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관직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나, 기준이 다를 뿐이지 이해타산의 기준이 다를 뿐이지, 이해타산적으로 움직였다고 하는 점에는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 믿는 것이 내게 어느 정도로 유익한 것이냐를 따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유익하다, 왜 유익하냐? 내가 돈을 제일 사랑하는데, 제일 사랑하는 돈을 잘 벌게 해 주니까, 내가 건강을 제일 사랑하는데, 건강하게 해 줄 수 있으니까, 내가 자식을 제일 사랑하는데, 예수 믿으면 자식에게 도움이 되니까…
이건 난센스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있어야 될 이해타산은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 믿는 게 내게 도움이 되느냐,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이해타산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라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이해타산이, 나라에 도움이 되느냐?
돈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해타산이, 내가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해타산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우리 이해타산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해타산을 하게끔 만들어진 존재인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해타산의 기준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 도움이 되면 아담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 도움이 안 되면 아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마귀가 와가지고 이해타산의 기준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아니고도 이 세상이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지 말았어야 될 성공인데 그 성공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매진하고 성공을 쟁취했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 실패는 감사했어야 될 실패인데, 그 실패를 저주하고 좌절하고 그 실패 속에서 낙담하다가 인생을 다 소모해 버렸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가려져 있던 천국과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드러나게 될 거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도 백 억 쌓여져 있는 돈더미를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예언합니다, 예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국과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될 때에, 대통령 관직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 보고 나면, 진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한 번 보고 나면,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걸 알게 되고 최고라는 걸 알게 되지,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을 향해 가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심판 때가 되면, 내가 정말로 자부심을 느꼈던 그 성공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로 부끄럽게 여겼던 그 실패가 내게 얼마나 유익한 길을 갈 수 있었던 기회였던가를 알면서, 인생에 대한 나 자신의 평가가 완전히 뒤집혀져 버리고 말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해타산의 대왕의 면모가 나타나고 있어요.
바울.
어쩌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지 몰라요.
어떻게 따지는가를 한 번 봅니다.
첫 번째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따진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이라는 거는, AD61년인가 63년 62년 그 사이에 로마에서 1차 투옥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빌립보교인들이 무지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것과는 질이 다른 거예요.
정말로 로마시민으로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생사여탈의 여부가 결정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교인들이 걱정이 많아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가만~히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며 따져 보는 거예요, 이해타산을 해보는 겁니다.
'아! 이거 손해가 하나도 아니구나, 내가 손해 볼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딱! 마음에 캐치한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기준이 뭐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해타산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이, 돈을 사랑해서 이해타산의 기준으로 삼고 있거나, 이 세상에서의 자존심이나 명예가 같은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거나, 이 세상에서의 뭐 가정을 화목하게 돌보면서 가정이 번영하는 걸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건 엄청난 해악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복음을 전파하다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어쨌든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바울이, 가만~히 타산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아! 요거, 요거 손해가 아닌 거예요, 요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번에 대학 떨어진 아이들 있지요?
그럼 그 대학 떨어진 아이들의 문제가 이로운 것입니까, 해로운 것입니까? 이걸 어떻게 따지고 계십니까?
그 아이가 그리스도께 가는 것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로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얘가 어떻게 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일에 더 유리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라 이겁니다.
아들이 사업하는데 사업이 잘 안돼요, 그래서 부모 마음에 걱정이 많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돈이 이해타산의 기준이면, 사업이 안 되는 게 해로운 것이지만, 내 아들이 우선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되겠다고 하는 기준을 갖고 이해타산을 따져보면, 사업이 안 되는 게 유익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하겠다고 날뛰기 전에 먼저 이해타산의 기준을 확실히 하자 이겁니다.
뭐가 유익한 겁니까?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유익한 것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세상은 그렇게 불행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사고 싶은 것 마음대로 살 수 없고, 쓸 수 없는 돈이 없다는 것이 유익합니까? 해롭습니까?
장사 없어요,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는 돈이 있고 사고 싶은 것 다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거 살 수 없는 경제 형편, 하고 싶은 거 할 수 없는 경제 형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최고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있을 때, 이해타산을 해 보면 얼마나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건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어떻게 피부로 느끼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저는 느끼고 확신합니다.
인간의 죄성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절대 안돼요.
그래서 부잣집 자식들이 효자가 나오기 힘듭니다.
가난하고 철저하게 고생고생하면서 산 자식들이 부모 생각할 줄 알아요.
이상한 역설입니다.
자식이 해 달라는 거 다 해줬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 자식들은 모자라요, 부모에게 더 받아야 돼요.
근데 해준 게 아무 것도 없는 자식이, 나중에 번 돈 얼마에서라도 꼬박꼬박 부모를 챙깁니다.
이상하지요? 이상한 역설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겉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또 계산을 하는 거예요.
뭘 계산 했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시위대라든지 로마의 관료들을 접하는 기회가 된 거에요.
재판하는 사람도 와서 자기에게 묻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재판정에 서면 재판을 관할하는 법관이라든지 집정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할 것이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기회가 생겼는데, 가만 보니까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끼리도 여러 갈래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걱정하고 찾아와서 면회를 해요, 면회를 하는데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걸 보니까, '어~ 이렇게 감옥 안에 갇혀서도 이렇게 평강할 수가 있네, 이유가 뭘까?'
공중에 있는 그리스도의 공간 안으로,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신 그 공간 안으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빛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감옥 안에서 평강의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 아~! 천국과 이 그리스도로 인한 평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더 확신이 생겨요.
나도 감옥에 갇힐지라도 두려워 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래서 담대한 말씀으로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한 부류이고 또 한 부류는, 바울이 오기 전에 로마교회 안에서, 제법 신앙에 대해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로 오는 바람에 완전히 자기들의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갇혔습니다.
때는 이때다 생각해 가지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바울 때문에 흔들렸던 자기의 교회 내에서 입지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막 열심을 내서 전파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또 계산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시기해 가지고, 나보다 더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무지 노력한다.
그럴 때, 이해타산의 기준이 나 자신에게 있으면, 어? 이건 내가 로마교회에서 차지하고 있던 입지가, 이거 위태로워지는데…
이런 거 여러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잘 했어요.
그러면 담임목사님이 이게 위치가 흔들리니까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담임목사이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야! 부목사가 그리스도를 저렇게 잘 전하니 이건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담임목사님이 그리스도를 진짜 사랑해서, 이해타산의 기준이 그리스도였다 그러면, 부사역자들이 그리스도를 잘~ 전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다 그러면, 이건 내게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에요.
그러므로 시기로 전하든 뭐로 전하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니까, '옳거니 됐다! 나는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또 계산하나 하면, '내가 이렇게 재판받다 죽을지도 모르지만 죽든지 살든지 나는 기뻐할 것이다.'
왜 그러냐?
'지금 살아 있으면서 일어난 모든 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까 살든 죽든 유익하다.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죽는 일이 일어나도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뜻이라 그러면, 그 뜻은 이루어지는 게 내게 유익이라 이겁니다.
내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이라 그러면, 그 뜻은 이루어지는 게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죽는 것까지라도.
그리고서 마지막 24절에, 살짝 이해타산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21절에도 유익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

그건 금방 말씀 드렸고,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또 유익이라는 말이 나와요.
또 이해타산을 하는 거예요.

이점을 읽어 보시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나서 이어져서 나오는 얘기가, '내 속마음을 얘기하자면, 내가 지금 육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일이다.' 또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직접 대면해서,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 거니까, 제일 좋은 거다.'
근데 여기 살짝 이해타산이 쉽지 않은 다른 변수가 작용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그래도 내가 계속 살아 있다 그러면, 빌립보교인들이라든지 로마교인들이라든지 다른 이방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더 전파할 수 있게 되니까, 아~ 요것도 무시할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도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이해타산을 해볼 때 손해가 아니고,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께로 간다는 것도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이해타산을 해보면 손해가 아닌데…'
아~ 요거 참 어려운 거예요, 요거 참 어려운 겁니다.
나 자신만의 이 인생의 울타리 안에서만 생각하면 그리스도께 가는 게 유익인데, 다른 사람까지 포함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나? 생각해보니, 그 사람들이 더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새롭게 알아 가면 좋은 거니까, '아! 이건 내가 살아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려 주는 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이해타산의 대왕이었어요, 대왕.
지독한 이해타산쟁이가 사도바울입니다.
모~두가 이해타산을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은 이해타산의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지요? 왜 아닙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주어지는 상황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이해타산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에요.
그 말을 바꾸면,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을, 모든 인간관계를, 하나님께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이해타산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타산을 하면서,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길을 찾아 갈 때에, 확고한 참된 행복의 젖

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보여준 이해타산의 절정, 정말 사사건건 계산을 해 내는 거예요, 사사건건.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이해타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유익할까, 해로울까.
이 기준을 이해타산을 하는 이해타산쟁이들이 됨으로써 제2 제3의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이 지상에서 이루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의 순간순간 본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이해타산의 기준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 기어코 주님이 가리키시는 하늘의 아버지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이해타산의 결과는 털끝만치의 오류가 없는 것이 됨으로써, 참 행복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